

유전에 따른 외식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장로들의 유전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15:1-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일주일이 넘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성문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문법 위에 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전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유전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그 어느 규범보다도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그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냈던 수많은 주석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전에 권위를 두고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유전을 도무지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서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특별히 제자들의 손이 더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법에 의하면 많은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에서 보는 더러움으로써 이런 상태로는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더러운 것에 닿은 것을 만진 사람은 더러워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도 더러운 존재입니다. 만약 이방인이 지나간 길을 지나가게 되면 이방인이 밟은 먼지가 묻게 되므로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정결례에 대한 규정은 까다롭고 우스울 정도로 세밀했습니다. 그래서 씻는 일은 그들의 유전이 되었고, 또 씻더라도 규정된 방법에 따라 씻어야 했습니다. 모든 먼지와 흙시라도 접촉되었을지 모를 불결함에서 스스로 깨끗해졌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먹기 전에는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씻지 않고 음식을 손으로 그냥 먹게 되면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손 씻는 의식은 씻는 사람이 똑바로 선 자세로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으면 한 사람이 물을 손 위로 부어 줍니다. 그러면 손을 앞과 뒤, 그리고 위 아래로 문지르며 씻는데 중요한 것은 물이 손목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씻은 물이 다른 곳에 닿으면 그곳 또한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계속 내밀어 이 물이 씻는 사람에게 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팔 부근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서서 손 위에 물을 부어 씻고, 또 물을 부어주면 약간 구부린 자세로 손을 문질러 씻게 되며 마지막으로 위에서 부어주는

물로 손가락을 함께 문질러줌으로써 더러운 것을 모두 씻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의식을 하지 않고 바로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손을 씻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한 이런 유전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의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전을 범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너희 유전을 범하느냐’ 대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정한 의식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경우는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부인이 갈보리 채플에 친구의 초청을 받아 방문을 하였는데 그분은 미주리 주의 한 루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예배 후에 제게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기도할 때 제단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녀는 정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서 ‘뭐라구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녀는 “당신은 기도할 때 돌아서서 저 제단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제단에 살고 계시지 않아서 안 보았나 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는 돌아서서 예수님 상을 보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지경에까지 유전을 만들고 지켰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이르셨으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15:4-6)

성경은 부모를 훼방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반드시 죽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유전에 의하면 만일 부모를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라는 서두만 달면 그 후에 어떤 나쁜 말로 부모를 훼방해도 무방했습니다. 때로는 ‘고르반’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들렸다’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면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유전으로 사실상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거짓된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직선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가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15:7-9)

오늘날 교회들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참으로 많은 독단을 행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공경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15:10-11)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은 사람의 교훈인 유전의 거짓되고 외식적인 본질을 비판하셨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좋습니다. 단지 잘 요리되어 있지만 확인하십시오. 기생충 따위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만 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드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질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15:12)

예수님의 직설적인 비난으로 인해 저들이 화가 났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은 것마다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라고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모두 뽑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두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거와 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15:16-20)

음식은 먹고 소화되어 배설됩니다. 그런 음식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입으로 나오는 그것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입으로 토해내는 것, 즉 미움과 쓴 뿌리, 정욕과 욕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와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15:21)

여기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은 페니키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지방을 완전히 떠나셔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15:22)

이방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간청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에서 ‘주님, 저 여자가 우리를 방해하니 주님께서 가셔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가 듣는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15:25-28)

본문에는 예수님이 몹시 차갑고 냉담히, 심지어 모욕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위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요한복음 2:24-25)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아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 드러나도록 참으로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반응은 단지 침묵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제자들이 귀찮아서 ‘주님, 좀 말아주십시오’라고 청하기까지 끈질지게 달라붙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데도 주님은 계속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그녀를 물리치셨습니다.

‘개’라는 말이 의미하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최악의 경멸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쌍소리나 욕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욕을 하는 것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욕을 할 때는 영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에 욕이 없기 때문인데,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심한 말로 사람을 부를 때는 “개”라고 부릅니다. 특히 그들은 이방인을 그냥 이방인이라 부르지 않고 ‘이방인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인데, 하나는 떼지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몹쓸 들짐승을 의미하고 또 다른 단어는 식탁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노는 작은 강아지를 뜻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식사 도구가 없었습니다. 즉 나이프나 포크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식사 예절을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집어 먹었는데 식사가 다 끝나면 한 조각의 빵을 집어 손을 닦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과 소스들을 닦아 이것을 식탁 아래 있는 작은 개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답변은 예수님의 침묵, 즉 냉담하게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반응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승리를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딸의 어머니는 참으로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태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녀는 도움을 받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병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시니 병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붙잡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코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었던라 예수께서 무리를 흠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더라”(15:29-39)

마지막 절에 마가단 지경이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인데, 그곳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난 막달라 도시의 유적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주의깊게 읽지 않고 우연히 거기 막달라에 교회를 세우고는 주님이 빵과 생선으로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어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곳에서 떨어진 산에서 무리를 먹이신 이후에야 그곳 마가단 지경으로 오셨습니다.